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김용기 교수

아침 일찍 고속버스를 타고 청주로 향했다. 늘 널찍하고 한가로울 것만 같았던 충북대학교 교정도 새로 들어선 건물들로 이제 막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는 듯 했다. 천문우주학과가 있는 자연과학대학 건물 앞에서 낮익은 것을 하나 발견했다. 한 때 충북대학교 이동천문대의 상징이었던 이동식 돛이었다. 덩그러니 놓인 것이 좀 우습기는 했지만, 나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듯 보였다. 개학 준비 청소로 분주한 계단을 통과해서 김용기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마침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주니어부 교육이 진행 중이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김 교수의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약 봉투도 보였다.

“갑자기 감기 기운이 도네요. 멀리서 왔는데 미안해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는 2008년 1학기부터 대학원에 대중천문교육 학위 과정을 새로 개설 했다. 3명의 석사과정 신입생들에 대한 지도는 김용기 교수를 비롯해서 이 용삼 교수와 정장해 교수가 담당한다. 현재 학위 과정에 몸담고 고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의사 5명과 대중천문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대학원생들도 조만간 이 과정에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 있는 사설천문대와 청소년수련원에 저희 줄

업생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전문 인력을 제대로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는 대중천문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학교 내에서는 청소년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천문학 쪽 교육과 이벤트를 도맡아 해왔다.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두세 차례 별사랑 축제를 열고 있기도 하다. 지난 4년 동안은 청주시에 어린이 천문관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또한, 청주에 있는 과학 특화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에 플라네타리움 설치를 돕기도 했다. 이런 천문 대중화 전통이 이번 학위 과정 개설에 큰 초석이 되었을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시민천문대를 건립하면서 간헐적으로 전문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낼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일종의 딜레마라고나 할까요.”

졸업생들의 취직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먼저 준비된 인재를 키워 놓아야겠다는 것이 김 교수의 소신이다.

“그러자면, 망원경을 직접 뜯어보고 조립하는 과정도 익히

고, The Sky 같은 프로그램을 숙지하는 교과 과정이 필요해요. 교육 방법론도 공부하고, 나아가서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교육도 받는 그런 과정 말이지요. 기존의 교과과정에서는 하기 힘든 작업이지요. 지난 2-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어요. 대학원장과 학장을 만나서 이런 과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정지 작업을 먼저 했지요. 큰 문제는 없었어요. 호응도 좋은 편이었지요.”

우선 이번 학기에는 일반천문학 수준의 천문학 전반에 관한 강의인 ‘천문학 특강’과 ‘서양천문학통사’ 두 과목과 함께 대중천문교육 과정을 시작한다.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의 재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심화시키고 논문을 쓰면서 자신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재무장을 해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천문관측 도우미가 아닌 대중천문학 프로그램 기획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김 교수 희망이자 목표이다. 김 교수는 또한 진천의 폐교를 수리해서 새로 문을 연 충북대학교 천문대의 1미터 망원경을 활용한 교육과 연구 구상에도 몰두하고 있다.

감기 기운이 더욱 기세를 올리는지 김 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간 점심 식사 자리에서 밥은 한술 뜨는 등 마는 등 하고는 식당 한쪽에서 잠시 누워 쉬을 청했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권했지만, 김 교수는 고집스럽게도 보여줄 것이 있다며 직접 제작한 천문교육 교구가 있는 방으로 이끌고 가셨다. 일주 운동을 보여주는 모형이며 혜성 만들기 실험 키트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인터뷰 주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돌려봤다.

“10년 전에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가정에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지요.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 후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교육도 하고 스텝으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심코 했던 못된 짓들도 이를 계기로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내와 함께 신학 공부를 마쳤고, 상담심리학 공부를 계속 했어요. 내일 같이 졸업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게 되었다는 김 교수의 설명이다.

“천문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도 하구요. 아버지 학교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만, 상담심리학 전공을 살려서 앞으로는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문제 있는 자녀 뒤에는 문제 있는 부모가 있거든요. 가정 바로 세우기랄까요.”

다섯 아이의 부모인 김 교수 부부는 인터뷰 다음 날 대전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용기 교수는 두 살 때 소아마비로 두 발을 못 쓰게 되었다. 지금도 보조 기구에 의존하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는 장애인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6년 동안 매일 그를 자진거에 태워서 통학시킨 마음 따뜻한 아버지가 있었던 행운아이기도 하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용기 있고 끈기 있는 김 교수를 만들어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대학교 약대에 합격은 했었는데 장애를 이유로 입학할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재수를 해서 연세대학교 천문기상학과에 입학했는데, 김 교수는 그야말로 오기로 학교를 다녔다. 뭘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지리산 종주도 하고 대청봉에 오르기도 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약대 입학할 거부했던 그 대학교를 통째로 사버려야겠다고 호기를 부리기도 했었다.

늘 당당했던 김 교수의 마음가짐 때문이었을까, 그의 장애는 거의 의식되지 않았다. 오래 전에 김 교수가 독일 유학 중이던 시절 만났을 때에도, 인젠가 ‘제야의 종’ 타중식에 뿔뿔히 나갔을 때도, 김 교수의 목발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연고전이 끝나면 동대문 운동장에서 신촌까지 친구 선배 후배들과 함께 뛰곤 했어요. 그들은 늘 나를 장애인이 아닌 그저 그들의 평범한 동료로 대해주었지요. 동지로서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해준 그 분들이 참 감사해요... 장애우들 앞에서 강연할 때면 장애를 인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적 고통이 크다. 인정의 바탕 위에서 일어서자. 정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장애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들에게는 주위 친구들의 동지로서의 어울림이 중요해요.”

감기에 걸려서 툭툭툭 하고 있어도 그날따라 용기 있는 작은 거인 김용기 교수의 모습이 무척이나 더 커보였다.

